

## 이번 호에는...

### 2면 군관련 소식

우리가 모르는 이태원의 역사  
육군사관학교 JSA Tour

###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 4,5면 부대 탐방

94헌병대대 142헌병중대



### 6면 자유 공간

미국 AUSA 방문기

###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 8면 안녕하세요

김지우



###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7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미8군본사 지휘관 이취임식



카투사 신문 강병삼

Paul L. Legere 중령이 5월 29일 용산 메인포스트 나이트필드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Mark D. Troutman 중령의 뒤를 이어 8군 본사(U.S. Army Troop Command Korea) 지휘관으로 새로 부임하였다. 사진 왼쪽부터 Legere 중령, 미8군 사령관 Charles C. Campbell 중장, 미8군 참모장 William D. Ivey 대령, Troutman 중령.

## 경희대 학생 8헌병여단 방문

미국의 33대 대통령 Harry S. Truman은 "역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고 말한 바 있다. 리더십, 즉 통솔력이 없는 사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사회의 진보는 사회의 용감한 지도자들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꾀하는 때 일어난다.

지난 5월 30일 30 여명의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미8군 8헌병여단을 찾아 하루동안 부대체험을 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에서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Marlene Champagne 교수의 남편인 8헌병여단장 Peter Champagne 대령의 주선으로 이루어졌고 부대를 방문한 경희대학교 학생들은 이 방문을 통해 Truman이 한 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우칠 수 있었다.

올해 초 Champagne 대령은 경희대학교를 찾아 그의 아내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그가 어떻게 8헌병여단에서 2,000여 명의 병사들을 지도, 지휘해 왔는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그의 아내로부터 또 한번의 일일강사를 권유받자 이들 수강생들을 부대로 불러 '현장학습'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부대 장벽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한국의 대학생들도 알 필요가 있다"며 이번 부대 초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의 대중들에게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Champagne 씨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통솔하는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Eighth Army PAO Staff Sgt. Russell C. Bassett

8헌병여단장 Peter Champagne 대령이 부대를 방문한 경희대 학생에게 M4의 작동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고 바램을 표시했다. 그녀는 또 "여단장인 남편이 그의 병사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지휘하는지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번 부대 일일 체험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대의 여러 군사장비들을 직접 체험한 학생들은 이번 부대 방문을 매우 즐기는 듯 보였다. 이들은 이번 방문을 마치고 부대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리더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외에도 '주한미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또한 얻고 나갈 수 있었다.

# 우리가 모르는 이태원의 역사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즐겨 찾는 곳은 단연 이태원일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둘러보지 않아도 이태원은 꼭 가본다고 한다. 그러나 이태원을 마냥 놀기 좋고 살 것 많은 곳이라는 것 말고 이태원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미 8군 참모장 사무실의 Luz A. Pazzi 상병은 "이태원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 중 이태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주 가는 이태원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도움도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이태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14세기부터 이태원은, 나그네들이 영남 지방에서부터 서울로 이르는 처음 생

긴 길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공무수행 관리와 여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숙소로 만들어진 곳 중 하나이기도 했다. 서울로 이르는 길임과 동시에 한강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 무역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졌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는 일본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이곳에 후방병참 기지를 설치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 주둔 일본군 총사령부와



미8군 공보실 일병 윤종필



미8군 공보실 일병 윤종필

20사단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광복 후 일본이 물러간 후에도, 이태원은 휴전 직후인 53년 8월 동송동 서울대 캠퍼스에 있던 미 8군 사령부가 용산으로 이주해 왔다. 당시 넓은 벌판에 드문드문 소나무 숲 밭과 과수원이 널려 있던 이곳은 미군 상대의 가건물 주점과 기지촌 흥등가로 변해 갔다. 70년대 초반부터는 부평에 있던 미 8군 121후송병원이 미 8군 영내로 옮김에 따라 병원 종사자와 가족을 포함한 1만 여명과 부대 주변 상인들이 함께 이전해 왔다. 이후 이태원은 볼거리, 살거리, 그리고 오락거리가 풍부한 복합 쇼핑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이태원의 모습이다.

미군뿐만 아니라 카투사들에게도 이태원의 역사는 생소하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근무하는 미군들이 즐겨 찾는 곳이니 만큼 그들에게 이태원의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미 8군 공보실 일병 윤종필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 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송 공인 신문임. 주간 미군 인쇄장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 8군 부대내 2372건물 107호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7196/4683/3537(fax)임.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서서함 59호 미 8군 본부종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imddong@usfk.korea.army.mil임.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펠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김덕곤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대위(진) 이세희
- 편집장
- 병장 김대동
- 기자
- 병장 이만석
- 상병 강병삼
- 일병 장승모



- Eighth U.S. Army Commander
- LTG Charles C. Campbell
-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 LTC Steven A. Boylan
- Command Information OIC
- MAJ Lee M. Packnett
- Editor
- SGT Kim, Dae Dong
- Staff Writers
- SGT Lee, Man Suk
- CPL Kang, Byung Sam
- PFC Jang, Seung Mo
- Special Assistant
- Mr. Oh, S. C.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Room 107 Bldg. 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7196/4683/3537(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parkjy@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 육군사관학교, JSA 투어



미8군 공보실 일병 윤종필

지난 6월 4일, 50여 명의 미군과 육군사관학교의 장교들, 사병들, 생도들이 모여, 한미 우호 증진과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취지로 JSA 투어에 참여했다. 투어의 일정은 도라 전망대, 도라산역, 판문점을 둘러본 후 함께 캠프 보니파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끝났다. 사진은 JSA투어에 참여한 이들이 제3땅굴 앞에서 가이드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대해 설명 하는 것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 공 고

오는 6월 20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용산기지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서양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 불교'를 주제로 종교 스님의 초청 강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 청교도 가정에서 자란 종교 스님은 워싱턴 대학을 졸업, 1993년 한국 통도사에서 불교에 귀의, 스님이 되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종교 스님은 많은 불교 저서를 영어로 번역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종교 스님은 서양인의 시각에서 한국 불교를 바라보고 또 한국에서 그가 경험한 것들을 청중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강연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조우영 씨(전화 723-7001), 이경주 씨(휴대폰 017-269-8083) 또는 김윤희 씨(전화 722-2206)에게 문의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 kimddong@usfk.korea.army.mil

■ 군상식

Sprut-SD 대전차자주포



제공사진

125mm 활강포와 7.62mm 동축기관총으로 무장한 전차

러시아의 Sprut-SD 대전차자주포는 적 장갑차나 탱크를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공격보병부대에 대전차화력지원을 제공하여 적 병거나 요새등을 파괴하여 공격의 물꼬를 터줄 뿐 아니라 정찰임무와 전투보안임무의 수행도 가능하게 만들어진 전차이다.

◆ 화력

Sprut-SD 대전차자주포는 T-80U나 T-90S 탱크에 탑재된 포와 유사한 125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유도미사일 시스템 및 7.62mm 동축기관총으로 무장하

고 있다.

대전차포탄은 현재운용중인 모든 탱크에 효과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유산탄을 사용할 경우 적 토치카나 넓은 지역에 산개한 병력에 대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자동포탄장전 시스템은 분당 6-8발의 발사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재래식포탄이나 유도미사일을 모두 발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레이저 유도미사일은 100-5,

000m 거리에 있는 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이처럼 Sprut-SD 대전차자주포는 적 탱크 공격이나 장거리 타격에 있어 뛰어난 전투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사일은 저공비행중인 헬리콥터에도 위력을 발휘한다.

◆ 생존성

Sprut-SD 대전차자주포는 전투생존능력 향상을 위해 고효율 NBC 방호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연막탄 발사기 및 차체 주요부분에 자동소화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낮은 차체와 위장도색으로 적의

감시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장의 다양한 지형조건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한다.

◆ 기동성

Sprut-SD 대전차자주포는 전장까지 항공기로 이동이 가능하며 차량에 승무원이 탑승한 채로 낙하산을 이용한 투하도 가능하여 전투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 이동후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엔진은 510마력 디젤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포장도로에서는 차량의 무한계도에 탈착 가능한 아스팔트 주행용 고무패드부착으로 도로의 파손없이 고속주행이 가능하다. 눈이 많이 쌓인 지역이나 습지 및 사막지역에서는 특수광폭궤도의 부착으로 불편없이 주행할 수 있다.

도하시에는 별도의 도하준비 없이도 수심 3m까지의 하천등을 통과할 수 있으며, 도하시에도 대전차포와 미사일의 발사가 가능하다. 전투임무수행중에는 자체동력을 이용하여 해상에 상륙해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

◆ 유지관리

조작이 간단하며 차량에 적재된 예비부품을 이용하여 야지에서도 승무원에 의한 수리가 가능하다.

◆ 작전능력

Sprut-SD 대전차자주포는 화력과 기동성 및 전투생존능력의 조화로운 운용으로 적 목표물에 대응한다. 경전차급에 해당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후조건과 산악 및 험한 지형, 해안지역, 늪지와 수상에서도 적 탱크, 병커, 요새 및 대규모병력등에 주야간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제공사진

수중 작전 및 공격이 가능한 Sprut-SD 대전차자주포

카투사들의 한마디

# 나의 피로회복 방법



142헌병중대 2소대  
병장 나영주

우리 중대는 근무 스케줄이 워낙 자주 변하고, 근무에 고단함이 심한 편이라서 스트레스나 피로가 심한 편입니다. 이렇게 피로가 심할 때, 쉬는 날이라도 되면 하루 종일 자는게 저의 피로 회복법입니다. 제일 간단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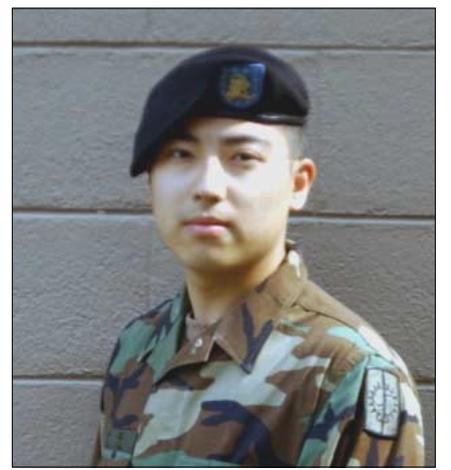
142헌병중대 2소대  
상병 김지욱

일단 충분히 잠을 자야만 여러 날 누적된 피로가 풀립니다. 때문에 쉬는 날만큼은 밥도 거를만큼 늦잠을 즐기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식사, 운동을 통해서 다시 그날의 활력을 되찾습니다. 몸도 마음도 고된 일이 많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소대원들 간에 의지가 많이 됩니다.



142헌병중대 본부소대  
상병 김재훈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는 일단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사무실 밖에서 바람을 쐬며 몸을 푸는 것입니다. 혹 잠시 동안이라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한 동안 눈을 감고 긍정적인 일들과 사고를 마음에 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42헌병중대 2소대  
일병 박근우

저는 몸에 피로가 쌓이면 근무가 없는 날 충분한 숙면을 취해 줍니다. 아니면 소대원들과 같이 농구 경기를 한다거나 외출이 가능할 때 여자 친구와 같이 야구장이나 농구장을 찾아서 같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 쌓였던 피로가 풀리곤 합니다.



# 142 헌병중대 REGULATORS!

카투사 신문 강병삼

기지 내 안전 관리, 부대 밖 유흥가 순찰, 차량 검문, 범죄자 호송, 요인경호,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처리, 게다가 실전을 대비한 야전훈련까지... 헌병 사이에선 'MP'를 'Multi Purpose'라 해석할 정도로 헌병의 업무내용은 실로 다양하다. 게다가 가장 큰 지역과 많은 인원을 담당하는 '용산헌병'이라면?

춘천에 본부소대를 둔 55헌병중대에서 파견되어 상주하고 있는 2개의 소대와 때때로 다른 지역 헌병부대에서 나와 근무하는 지원병력을 제외하면 94헌병대대 142헌병중대가 Area II를 도맡고

있는 유일한 중대이다. 군부대 안의 일도 있지만, 이태원이나 한남외인아파트 등 부대 밖에서 한국인, 미국인, 군인, 민간인 등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생기는 크고 작은 사고를 상당부분 이들이 처리하고 있다.

142헌병중대의 카투사들은 중대 전체의 4분의 1이 약간 넘는 숫자이다. 이들은 인사과, 보급, 모터풀, 화생방실 등 본부소대의 사무실마다 한명씩은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4개의 근무소대에서 헌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근무헌병 업무를 수행하는 카투사들은 주특기로 헌병, 부특기로 운전올 가지고 있어 근무소대 카투사 전원이 운전을 하고 있다.

본부소대의 업무는 다른 카투사들과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지지만 근무헌병 업무는 3개의 시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데이시프트의 경우 4시 30분에 일어나 5시 30분부터 근무 준비를 시작, 7시부터 15시까지 근무에 투입되고, 16시 30분부터 PT를 한다. 사건, 사고가 있을 경우 2-3시간 연장근무를 하기도 한다. 다른 시프트는 15시부터 23시, 23시부터 7시까지 근무한다. 이처럼 무기를 지급받고 가드마운트를 하는 등 1시간 반 전부터 근무 준비를 하고 끝날때도 사건이 있을시 교대가 늦

어지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편이고, 야간 근무시에는 식사 등 애로사항이 있다. 카투사 워크 등의 행사에도 누군가는 근무를 서야 하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한다. 근무시간 동안 이들은 기지 안을 순찰하고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업무 외에 거리 순찰(Town Patrol)이라고 해서 이태원 등지를 다니며 통금시간을 어긴 인원들을 적발하고 치안 유지, 사고처리 등의 업무를 한다. 기지의 경계 상태 단계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갈 경우, 헌병이 필요한 장소가 늘어 일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본부소대 인원들도 모두 지정 장소에 투입된다.

이들은 헌병의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 6주 정도의 순찰기간과 야전에 나가 훈련을 하는 6주의 훈련기간을 번갈아가며 생활하고 있고 사이에 영내교육기간이 끼기도 한다. 훈련기간의 경우 길면 2주, 짧으면 4박 5일간의 훈련을 6주 내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사격훈련(Live Fire Exercise)은 실탄을 쓰는 종합각개훈련으로, 2주동안 그를 위해 준비한 후 1주간 실시한다. 훈련시에는 보통 혐비 한대에 헌병 3명이 한 팀을 이루는데, 팀 리더, 운전수, 사수로 이루어지고 상병 이상의 카투사는 팀리더를 맡고 있다.

또 헌병들은 항상 무기를 들고 근무하



Eighth Army PAO Staff Sgt. Russell C. Bassett

기 때문에 4-5개월마다 한 번씩 M9 권총을 사격, 일정 기록 이상을 내야 한다. 보통 권총 사격의 4가지 자세에 더해 헌병들은 엄폐물을 이용한 사격과 양손 사격(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손으로도 사격하는)의 경우도 연습, 기록사격한다.

142헌병중대에 전입 온 카투사 신병들은 3주간의 교육을 받고 근무에 투입된다. 헌병의 여러가지 업무에 대해 3주만에 배우고 실전과 다름없는 근무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들은 신병 교육 때는 물론이고 수시로 LNO(Law & Order) 교육이



카투사 신문 강병삼



제공사진



제공사진



카투사 신문 강병삼

말했다.  
 중대 내 미군과의 관계에 대해 그는 "사실 일, 이병때는 사이가 좋다가 상병 이상이 되면 직접 이들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야구를 보러가는 등 많이 어울리며 항상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42헌병중대의 특이한 프로그램을 들자면 '전역 인증제'를 들 수 있는데, 토익 900점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2개를 따도록 부대차원에서 독려하고 있고, 이를 빨리 달성하면 포상휴가를 주고 있다. 142헌병중대 지원대장 김재광 상사는 "부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며 "후회없는 군생활을 만드는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소대의 김두희 병장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불규칙한 생활, 갑자기 사건, 훈련이 터지는 예측 불가능한 일정 등 애로사항이 있지만 노력하는 만큼 여러가지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표시는 나지 않을 지 몰라도 부대 안팎의 크고 작은 일,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국민방문 등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헌병으로서 카투사들에게 조언해 달라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담배를 피우며 걸어다니는 행위, 복귀시간 미준수 등을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적발하고 있는데, 한국군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당연히 규정위반을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또 신분증 제시 요구시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소대의 이석우 상병은 142헌병중대의 근무가 어떤지 묻자 "용산에서 헌병으로 일하는 것은 중요한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며, "용산에 민간인들이 많이 출입하는데 카투사로서 미군보다 친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

본부소대 한국군 인사과 김재훈 상병은 "군대에 와서 과거에 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며 이는 나중에 사회

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늦은 나이에 군대에 왔는데 저의 1년 반을 돌이켜 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날 중 가장 빨리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일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군생활 중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기대되고, 정채되지 않은, 날마다 새로운 군인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2소대의 박근우 일병은 군생활에서 "실사격 훈련이 가장 기억에 남고, 순찰하며 건물보안상태를 점검하고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등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 즐겁다"고 말했다.

본부소대 교통사고처리담당반의 홍승민 병장은 "Area II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모두 처리하고 있다"며, 부대 안의 사고는 헌병 측에서 처리하지만 부대 밖에서는 경찰관들과 협력하여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과 미국인이 모두 관련된 사고에서는 카투사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카투사가 자신 혼자라 모든 사건에 다 관여할 수 없어 아쉽다"고 했다.

"예전에 카투사 이병 한 명이 험비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고 막연하게 무척 불안해 했는데 제가 사고처리에 대해 설명해 주고 안심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카투사들이 교통사고에 연루될 경우 특히 일, 이병때는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침착하게 자기 할 말을 다했으면 합니다."

2소대의 Brandon Kerr 이병은 "항상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헌병이 되자 18세에도 경찰 일을 할 수 있어 좋다"며 카투사들과 함께 일하는 덕분에 한국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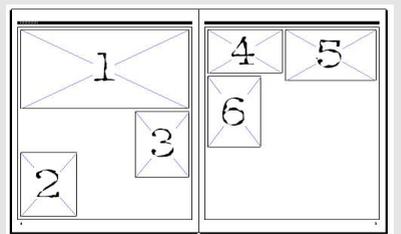
카투사들과 일하는 것이 좋다는 2소대의 Melissa Pratt 병장은 "평소 근무할 때나 훈련을 나갈 때, 카투사들은 지역민과의 의사소통 등에서 많은 힘이 되고 있다"며 "헌병 일이 힘들지 몰라도 우리는 술선수범하는 자세로 우리가 맡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42헌병중대 지원대장 김재광 상사는 "모든 여건을 인정하고 단기 목표를 세워 행동 계획을 수립한 후 열정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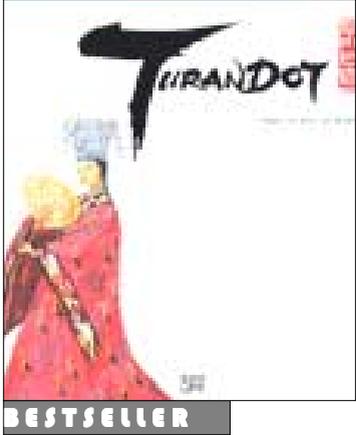
실천하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또 "군인인 만큼 군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전쟁을 위해 준비한다는 군의 기본 임무를 꼭 명심해야 한다"며 "전쟁을 준비하는 치열한 군생활을 마치면 민간인의 전쟁터인 사회로 돌아갈 때도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42헌병중대를 방문해서 만난 카투사들은 친절하고 자상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 규정, 질서 위반에 대한 가차없는 적발 사례를 밝히는 데서 그들의 투철한 '직업의식'을 느낄 수 있었고, 기자는 괜히 잘못된 것이 없는지, 복장은 어떤지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다. 오전이든 오후든, 날짜에,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142헌병중대 카투사들 중 누군가는 근무에 투입되어 있다. 그들을 만나도 몇몇할 수 있는, 수고한다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했다.

상병 강병삼



1. 2소대 이석우 상병과 Brandon Kerr 이병이 한남외인아파트단지 순찰하고 있다.
2. 2소대 김두희 병장이 근무 전 M9을 검사(Clear Weapon)하고 있다.
3. 142헌병중대 선임병장 이정엽 병장이 8헌병여단 주최로 열린 전술장비전시회에 참가한 대학생에게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4. 1소대 이우섭 병장이 실사격훈련에서 M203 유탄발사기가 장착된 M4 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5. 2소대 나영주 병장의 M249 사격 장면.
6. 3소대 김성준 상병이 William Mitchell 하사에게 근무 전 군화, 군복 상태를 점검받고 있다.



투란도트

카를로 고치 / 달궁

타타르국의 왕자였으나 나라를 잃고 떠도는 칼라프 왕자, 그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시녀 류. 과거에 사로잡혀 '세상에 사랑은 없다'라고 믿는 얼음처럼 차가운 투란도트 공주. 그들의 죽음을 뛰어넘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인스턴트 사랑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타인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의미와 그 가치를 일깨워주는 작품이다. 올 여름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이들은 필독!



WEBSITE

야구로컴

www.yagooro.com

한국의 대표적인 프로야구 커뮤니티, '야구로컴'! '라이언 킹' 이승엽의 홈런포가 연일 불을 뿜어내며 홈런 선두에 나서면서 프로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페이스라면 자신의 한국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프로야구 뉴스 및 동영상, 사진, 전적, 역사 등이 수록된 명예의 전당도 구경하기 좋을 듯하다. 야구 매니아들의 집합 장소로 알맞은 사이트.

■ 카 투 사 기 고 문

## 미국 AUSA 방문기

이현규 일병의 기고문 '이현규의 축구 이야기'는 이번 호에 실립니다. 그간 보내주신 기고문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 " 다양한 가치관의 용광로 "

- 미국 AUSA Annual Meeting 방문기

이 글은 18의무사령부에서 근무하다 얼마 전 군복무를 마친 염상훈 병장의 미국 방문기입니다. 염상훈 병장은 지난해 '올해의 카투사' 상을 수여하여 전 미8군 주임원사 Palacios 원사의 초청을 받고 미국 AUSA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미국에서 염상훈 병장이 보고 느낀 점들을 많은 카투사들이 공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Eighth Army PAO Spc. Lynnette M. Jefferson

오늘 막사 방에 걸려있는 두 군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Yum, Sang H.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미군 전투복과 Yeom이 적혀있고 예비군 마크를 단 한국군 전투복이 나란히 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 요원 2년간의 생활이 벽에 걸려있는 듯 싶었습니다.

카투사 생활을 되돌아보며 다른 요원과 무엇이 달랐겠나만은 작년에 '올해의 카투사'로 선정되어, 팔라시오스 미8군 주임원사의 초청으로 미국 AUSA conference에 참여하여 전체 미군의 느낌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맛보게 된 것 같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AUSA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AUSA(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는 1950년도에 시작이 된 비영리 단체로 기본적으로 미 국방의 여러 면과 미육군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USA는 현역 군인, 방위군, 예비군, 제대군인 및 시민과 가족 구성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임무는 1. 미육군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2. 미 국방에서 육군의 위치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및 3. 전문적인 교육과 정보교환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것을 AUSA 연례 모임으로 2002년도 주제는 "Realizing the Army Value"이었습니다. 다양한 포럼과 미팅, 전시회, 발표, 시상식 등이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한국 지부(Korean Chapter)의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9일 인천을 출발하여 19일 저녁 10시 워싱턴 D.C.에 도착하여 일정은 2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일은 주일이었는데, 'Army-10 miler'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10 마일을 달리는 행사로 이번에는 전 세계 16개국, 총 55,000여 명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행사로 각 지부별로

남자군인팀, 여군팀 및 원사팀을 구성하여 경쟁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어린이도 참여하는, 군인만의 행사라기보다는 군대에서 준비한 지역행사 같아 보였습니다. 부대 내의 사기, 단결력 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군대의 좋은 인상과 홍보역할 또한 담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행사 후 팔라시오스 원사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데 10 miler에 참여한 주민의 대화를 통해 그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1일에는 개회식, SMA와의 식사, 한국지부가 준비한 저녁 부페(Korean Chapter Hospitality Suite) 등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슈왈츠 장군 등 한국을 잊지 못하고 식사에 찾아준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에 가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식을 가졌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념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있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나로서는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22일은 SMA와 각 지부 보드 우승자 및 우수 병사와의 조찬이 있었습니다. SMA 주관 하에 약 70여명 정도 병사들과의 식사, 훈사와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이고 사소한 질문부터 군 전반과 관련된 질문까지 자유롭게 SMA에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자유로 우면서도 병사들이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이 분위기를 유지시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올해의 카투사' 상을 수여한 염상훈 병장(왼쪽)과 '미8군 올해의 병사' 상을 수상한 Kevin M. Murphy 상병(오른쪽)이 미국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에서 현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3일 'Airman Home'과 Arlington 국립묘지를 방문하였습니다. 'Airman Home'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잠깐이나마 무용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군의 시각으로 본 한국전쟁을 아주 조금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일 워싱턴을 출발하여 25일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어떠한 대단한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다른 시각을 느꼈고, 그 다른 시각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을 내린다거나 어떠한 시각만을 배척하거나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을 다민족의 용광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 다양한 시각과 가치관의 용광로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8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카투사는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제가 얼마나 주변 미군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과 많이 다르더라도 인정을 해주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이익을 좇아 살았던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이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2년 2개월 동안 잃은 것이 많지만,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기에 잃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최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18의무사 168의무대대 병장 염상훈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15 장

\*양상추 두 개 샀어요.  
오늘 상황은 두 아주머니의 대화입니다. "한 분이 뭘 샀어요?" 하니깐 다른 분이 "양상추 두 개 샀어요."하는 거죠. 내용을 보시죠.

Topic: "양상추 두 개 샀어요."  
I bought two heads of lettuce.  
주제연구)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lettuce는 '양상추'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배추'는 정확하게 Chinese cabbage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 미국 요리에 우리나라 배추가 재료로 쓰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자기나라식 요리를 할 때 우리나라 배추와 거의 비슷한 재료를 쓰지요. 그래서 Chinese cabbage라고 하는 겁니다. 배추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중국 요리엔 Chopsuey라는 게 있어요.

A: Where have you been?  
B: I've been shopping.  
A: What did you buy?  
B: I bought two heads of lettuce.  
번역)  
A: 어디 다녀오셨어요?  
B: 쇼핑가서 물건을 좀 샀어요.  
A: 뭘 사셨는데요?  
B: 양상추 두 개 샀어요.  
덧붙여)  
양상추나 배추를 세는 단위는 head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추머리 인형 기억하세요? 사실, 그 cabbage patch doll은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인형이에요.

\*이 원두커피(같은 것) 어디서 샀어요?  
아침에 일어나 진한 커피 향을 맡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잠도 깨고 좋죠? 특히 미국인들은 Smell the coffee! ("커피 향을 맡아라" 의역을 하면 "정신차려, 잠깨!") 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coffee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오늘의 표현이 자주 쓰이겠죠?

Topic: "이 원두커피(같은 것) 어디서 샀어요?"  
Where did you buy this ground coffee?  
주제연구)  
ground에 대해 연구합니다. Ground는 '곱게 갈다'라는 grind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의미는 '곱게 갈은'이 되지요. 다른 예로 ground beef가 있습니다. '잘게 갈은 쇠고기'가 되죠.

A: Smells good. Where did you buy this ground coffee?  
B: At Reno's Deli house. Do you like it?  
A: Yes, I do. Can you give me some?

B: Sure.  
번역)  
A: 향기 좋은 데이 원두커피(같은 것) 어디서 샀어?

B: Reno's Deli house에서 샀어, 향이 마음에 들어?  
A: 응, 나 좀 나눠 줄래?  
B: 물론이지.  
덧붙여)

Deli house는 요즘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체인식 빵집' 또는 coffee shop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식사도 할 수 있고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요.

\*정어리 (통조림)을 사고 싶어요.  
일반가정집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 메뉴는 그리 다양하지 않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가정집에서 '김치찌개' 또는 '된장찌개' 등 찌개류가 자주 오르듯 미국인들은 어떤 음식을 자주 먹나 볼까요?  
Topic: "정어리 (통조림)을 사고 싶어요"

I want to buy some sardines.  
주제연구)  
미국인들이 자주 먹는 생선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tuna(참치: 일반적으로 샌드위치용), sardine(정어리: 통조림에 들어있어서 즉석요리 가능), salmon(연어: 훈제로 요리 않고 직접 먹음)이 있습니다.

A: I'm going shopping.  
B: What will you buy?  
A: I want to buy some sardines.  
B: Could you pick up some oysters, too?  
번역)  
A: 쇼핑 가려고 해요.  
B: 뭐 사실 거예요?  
A: 정어리나 좀 사려고요.  
B: 오실 때 '굴'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덧붙여)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는 '유통성' 있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처럼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전에서 pick up의 뜻을 '집어 들다'라고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하지만 이 표현에는 오늘 내용처럼 "물건을 사다 주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전을 보실 때는 하나의 의미만 보지 마시고 여러가지의 뜻을 함께 익히셔야 합니다.

\*야채같은 농산물 어디에 있어요?  
오늘은 농산물 section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Topic: "야채같은 농산물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produce section?  
주제연구)  
수퍼에 있는 section별 분류를 해보면 dairy product section(우유, 아이스크림, 치즈 등 유가공품), meat section(고기류), produce section(야채등 농산물), beverage section(음료, 술등), snacks section(과자류) 등이 있습니다.

A: Excuse me, where is the produce section?  
B: Beside the column over there.  
A: Thank you so much.  
B: My pleasure.  
번역)

A: 미안하지만, 농산물은 어디에 있어요?  
B: 저 쪽의 기둥 옆에 있습니다.  
A: 고맙습니다.  
B: 아닙니다.  
덧붙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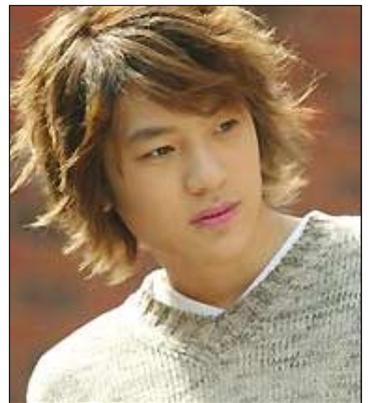
미국인들이 "Thank you."할 때의 대답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You are welcome. (천만에요)  
It's my pleasure.(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That's nothing. (친구끼리, "야, 그거 별거 아냐")  
Just forget it. (아주 친한 친구끼리 "야, 잊어버려 별거도 아닌거 가지고 뭐그래")



역전에 산다

감독: 박용운  
주연: 김승우, 하지원

어릴 적 천재 스포츠맨의 삶을 포기하고, 지금은 파산직전 불량 인생을 살고 있는 증권사 영업사원 강승완(김승우). 어느 날 승완은 정체 모를 터널 속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한 남자와 맞부딪힌다. 빨려 들어가듯 지나 온 터널 끝에서 정신을 차린 승완은 다른 세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또다른 승완을 발견한다. 이 남자의 인생역전 이야기!



TOP CHARTS

SEVEN

와줘

2. Break Away/Big Mama
3. 제비 / 김건모
4. 피아노 / 조성모
5. 사랑합니다 / TIM
6. Loveholic / LOVEHOLIC
7. 착각 / 악동클럽
8. 나 어떡해 / 베이비 폭스
9. 친구 / 안재욱
10. 진달래꽃 / MAYA
11. Mr. A-JO/AS ONE
12. Again to me / 차태현
13. 내 삶의 반 / 한경일

# 화창한 봄날의 햇살처럼~

# 김지우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끝나갈 무렵, 기자는 신인 아닌 신인 김지우씨와의 인터뷰를 위해 여의도에 있는 모 방송국을 찾았다. 김지우씨는 아직 봄기운을 품고 활짝 핀 꽃들과 싱싱한 나무들을 그냥 보내기가 못내 아쉬웠던지 방송국 맞은편에 위치한 여의도 공원에서 인터뷰를 제의했고 그에 따라 한적한 여의도 공원 벤치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김지우씨는 이날 모 포탈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연예계의 새별이다. 그러나 그녀는 '해성처럼 나타난 스타'라기 보다는 '고된 겨울을 인내로 이겨내고 꽃잎을 활짝 핀 봄나무'라고 해야 할 듯 하다. 5년이라는 긴 무명시절을 노력 하나로 이겨낸 그녀는 공원

는 현재 방영 중인 SBS 드라마 '천년지애'의 후속 드라마 '스크린' 촬영하고 있고요. 이 드라마에서 '경아'라는 역으로 나와요. 아직까지는 '스크린' 촬영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군인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

저는 사람들이 보통 남자분들을 보면 오빠라 그리고 군인분들을 보면 군인 '아저씨'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요. 비슷한 나이의 남자분들을 군복으로 나눠 오빠와 아저씨로 가르는 거요. 군인분들도 모두 오빠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웃음)

-군인이 제일 멋있어 보일 때

TV에서 군인오빠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군인오빠들이 멋

훈련하면서 고된 점들을 얘기하신 사연들도 있고 유머감각이 넘치는 사연들도 있어요.

-존경하는 연기자

최민식 선배님을 정말 존경해요. 아직 한 번밖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배우로서의 카리스마가 넘치셨어요. 카리스마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딱 보면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최민식 선배님이 연기하시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투혼을 다 바쳐 연기하세요. 정말 최고의 연기자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앞으로는 드라마 '스크린'에 온 힘을 기울일 거예요. 그리고 CF 랭 영화도 곧 찍을 것 같고요.



카투사 신문 장승모

대 내에 있는 '파파이스'에도 가봤고, 할로윈 축제 때에는 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가봤어요. 공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뛰어다니며 놀고, 가족들과 함께 피



카투사 신문 장승모

## 부대에 자주 놀러와 카투사 하면 굉장히 한번 반짝하다 사라지는 연예인이 아닌

## 친근하고 정겨운 느낌! 진정한 배우 되고 싶어..

저 보여요. 정자세로서 있는 모습 같은 게 남자다워 보여 멋있기도 하고요.

-카메라 앞에 서면 어떤 느낌?

아직까지는 조금 떨려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의기소침에 있다가도 카메라 앞에만 서면 밝은 모습을 비칠 수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만 서면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별거벗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요. 그래도 배우가 제 천성인지 카메라 앞에 서면 기분이 좋아요.

-군인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팬레터 사연

많은 군인분들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카투사분들한테서 받은 적도 있고요. 예전엔 군인분들이 이메일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군인분들한테 이메일을 받으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신 군인분께 답장을 보냈어요. 어떻게 군대에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냐고요. 그러자 그 군인분이 군대에서도 그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제야 제가 군대에 대해 정말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지요.

제 기억에 남는 사연 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계급이 병장인 분이 보내신 것 같은데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나오는 드라마가 방영되면 항상 채널을 고정해서 그 시간만 되면 그 나무만은 제가 나오는 드라마를 봐야한대요. 이 외에도

-어떤 연기자로 기억되고 싶은지

연기자보다는 배우라는 호칭을 더 좋아해요. TV 앞에서만 보여지는 연기자 아니라 연극도 할 수 있고 뮤지컬도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이쪽 길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사람들의 환호성에 이끌려서요. 하지만 절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도중에 혼자 울고, 비판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이러는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 있었어요. 한번 반짝하는 연예인이 아닌 진정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연기하면 김지우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요. 여자 최민식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제가 감히 넘볼 수도 없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꼭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카투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큰아버지도 카투사이셨고, 저와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께서도 카투사이셨어요. 제가 어릴 적엔 삼촌들이 미8군 공원에 들어가 축구도 하고 그랬어요. 부

크닉 온 미국 아이들과 논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카투사하면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요즘 종종 소수의 사람들이 반미시위를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우리 사회는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카투사도 필요하고, 미군들도 필요하고, 또 일반 한국군도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투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카투사분들도 혹여 몇몇 사람들이 카투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거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카투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몸 건강히 군생활 잘 하세요!

일병 장승모

**프로필**  
**생일:** 1983/11/22  
**키:** 168cm  
**몸무게:** 48kg  
**학교:** 동덕여대 방송연예학과

에 핀 봄꽃과 나무들보다 더 싱싱하고 빛나 보였다. 이제 그녀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TV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통해 전해질 길 기대해 본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김지우이고요, 본명은 김정은입니다. 생년월일은 1983년 11월 22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학과 2학년 휴학중입니다.

-데뷔하게 된 계기

저는 명동에 있는 계성여자고등학교를 다녔어요. 하루는 친구들이랑 수업 끝나고 명동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명동 거리를 걷고 있다가 말 그대로 '길거리 스카우트'가 되었어요. 명동이 워낙 번화가잖아요.

-최근 근황

드라마 '내 인생의 콩깍지' 촬영이 이틀 전에 모두 끝났어요. 그리고 요즘에



카투사 신문 장승모